

duduri Mebook AA001

프랑스 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



Reflections
on the Revolution in France
and
on the Proceedings in Certain Societies
in London Relative to It

에드먼드 버크 (Edmund Burke)

Type: E+

기획/해설/발췌-가필: 박성현

duduri mebook series (일반교양) AA001 Ver.1.0

해설

‘프랑스 혁명 및 이에 관한 런던 시민단체의 움직임에 대한 고찰’ (이하 RRF)은 보수주의 정치 철학의 바이블이다. 지은이 버크 (1729~1797)는 영국 정치가이다. 1789년 7월 프랑스 혁명이 시작되자 버크는 혁명의 심각한 문제점과 끔직한 과국을 꿰뚫어 보았다. 그는 1789년에 시작되어 10년 동안 진행될 프랑스 혁명이 광기, 공포, 타락, 파탄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내다보았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 지식인 사회의 일반적 분위기는 버크의 관점과는 전혀 달랐다. 영국 지식인 사회는 프랑스 혁명을 예찬하는 분위기였다. 예를 들어 프라이스(Richard Price) 목사 등 런던의 ‘시민사회 지도자’들은 혁명이 시작된 지 4개월쯤 지난 11월이 되면, 혁명을 열렬히 지지하는 대중 선동을 시작했다. 프라이스는 11월 4일 ‘우리나라 사랑하기’(A discourse on the Love of Our Country)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이렇게 선동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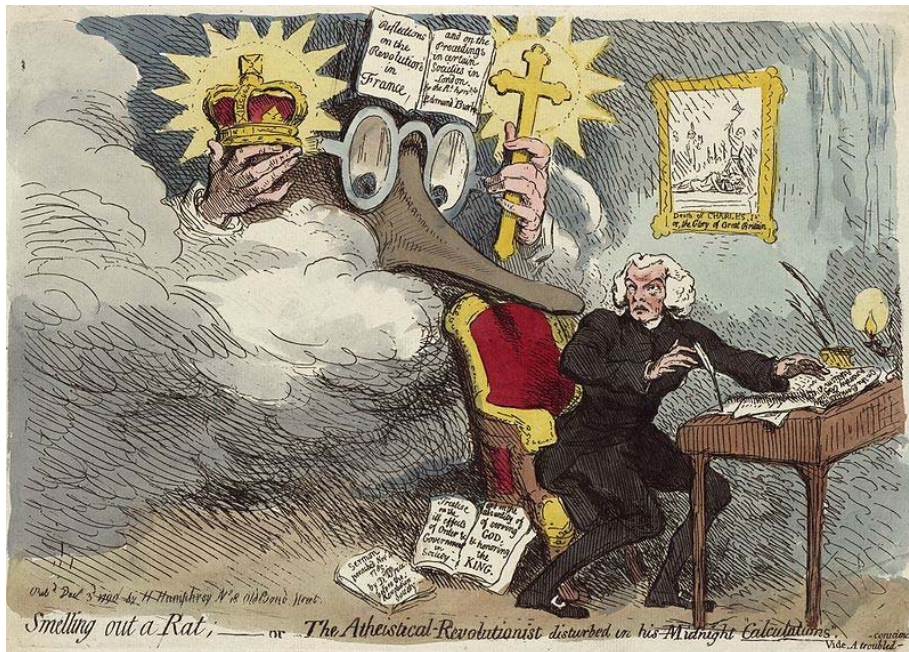
“아! 얼마나 찬란한 시대입니까! 살아 생전에 이런 세상을 볼 수 있다는 점, 감사할 뿐입니다. 오, 하나님, 제 눈은 이미 당신의 구원을 보았사옵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편한 마음으로 이승을 떠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저는 오늘, 미신과 오류의 천적인 지식이 널리 퍼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인간의 권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 더 확실히 알려지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유가 무엇인지 망각했던 수많은 민족들이 다시금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3 천 만 명에 달하는 프랑스 사람들이 분노와 결단 그득한 마음으로, 단호한 목소리로 노예적 굴종을 거부하고 자유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왕을 꺾어, 그를 끌고 행진했습니다¹. 자의적인 군주 체제가 이제 백성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이제 자유에 대한 사랑은 세상 그득히 퍼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왕의 지배가 법의 지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성직자의 지배가 이성과 양심의 지배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유를 지지하는 여러분! 자유를 위해 글을 쓰는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오! 희망의

¹ 1789년 10월 파리에서 19km 떨어진 근교 베르사이유 궁에 있던 왕, 왕의 가족, 왕 측근 귀족들을 폭도가 끌어내어 파리까지 6시간 동안 행진한 사건을 뜻함. 폭도들은 왕의 근위대 두 명의 목을 잘라서 창대에 꽂아 행진했음.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공격했던 왕국들이 이제 잠에서 깨어나 스스로의 족쇄를 부수고 그 압제자들에 대해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밝힌 불빛이 먼저 미국을 해방시키고, 이제 프랑스로 건너가, 폭정을 무너뜨리는 불길로 바뀌어 유럽 전체를 달구고 밝게 만든 것을 보십시오!

오! 너희 압제자들이여! 부들부들 떨지어다! 백성을 노예로 생각하는 너희들, 이제 조심할 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을 어둠 속에 가두어둘 수 없다! 너희는 이 눈부시게 빛나는 자유에 대해 감히 거스를 수 없다. 너희는 이제 인간에 대한 학대를 중지하고 권익을 돌려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너희와 인민은 함께 파멸을 맞게 될 것이다.²⁾



풍자화가 제임스 길라리(James Gillray)의 작품. 앉아서 글을 쓰다가 뒤를 보는 사람이 프라이스. 벽속에서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난 사람이 버크. 버크의 머리 위에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고찰’이라는 책이 펼쳐져 있다. 한편 프라이스가 애지중지하는 액자는 1645년 찰스1세의 처형을 묘사하고 있다. 그림 아래에는 “찰스에게 죽음을! 영국 만세!”라고 쓰여 있다. 버크는 RRF에서 프라이스를 맹렬히 비판한다.

이 풍자만화는 프라이스를 ‘무신론 혁명가’라고 표현한다.

프랑스 혁명을 예찬한 영국 지식층의 분위기는 영국 낭만파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 1770-1850)가 쓴 시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열 아홉 살 때 파리에서

²⁾ Marilyn Butler, ed., *Burke, Paine, Godwin and the Revolution Controvers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pp. 31-32

직접 혁명의 시작을 보았다. 다음 시는 그가 훌쩍 나이 들어 쓴 작품, ‘서시(The Prelude)’의 한 부분이다.

아! 희망과 기쁨의 분출이여!
 그날 초라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했지.
 우리와 함께 사랑에 빠졌지.
 그 날 새벽을 살아 생전에 보았다는 것 자체가 축복.
 아, 그러나,
 그 날 새벽을 청년으로서 보았다는 것은 천국, 그 자체.
 오! 그 시절이여!
 인습, 법률, 신분이 수반하는 모든 구질구질하고 정체되어 있고 사람 겁주는 것들이
 ‘혁명이라 불리는 로맨스에 빠진 나라’에 의해 박살 나던 시절.
 이성만이 힘을 쓰던 시절.
 이성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일을 위해,
 모두들 이성의 애인이 되기 원했던 시절.
 그 시절! 나라 전체, 지구 전체가 그랬었지.

이렇듯 상당수의 영국 지식층이 프랑스 혁명을 예찬하고, 영국에서도 공화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분위기였다. 많은 지식인들이, 1688년 명예혁명³을 계기로, 영국이 이미 매우 안정된 입헌군주국이 되었다는 현실을 무시한 채 ‘프랑스식 혁명’을 꿈꾸었던 것이다. 버크는 영국 지식층의 이러한 풍조에 크게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작심 하고 쓴 책이 바로 RRF이다. 이 책은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다음해인 1790년 초겨울에 출간되었다. 이 책 자체가 바로 목전의 현실 정치의 문제, 즉 “우리 영국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룬 정치 투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RRF는 단순한 정치 투쟁 팜플렛이 아니었다. 버크는 깊은 고뇌와 통찰을 통해 정치 투쟁의 정령을 승화시켜, A4 용지에 포인트 10으로 입력했을 때 약 190 쪽에 달하는 저서를 만들어 냈다. 그리하여 RRF는 지속(continuity)과 변화(change), 즉 보존(retain)과 개선(improve) 사이의 조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설명하는 고전이 되었다. 보수주의의 핵심은 바로 이 조화에 있다. 버크 자신의 말을 빌어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³ 영국의 명예혁명은 한편으로는 왕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위 세습 제도를 강화했다. 한마디로, 실권이 대폭 축소된 왕이 국민 통합의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체제를 만들어낸 것이다. 명예혁명 다음 해인 1689년에 제정된 권리장전(Bill of Rights)을 통해 확립된 왕권 제한 조치는 다음과 같다. 사법부의 독립, 의회의 독점적 조세부과 권한, 국민 청원권, 비전시(非戰時) 병력 투입에 관한 의회 결정권, 국민 무장권, 의원 선출에 관한 국왕 개입 금지, 의원의 의회 발언에 관한 면책 특권. 한마디로 영국은 이때 민주적 입헌군주국으로 거듭난 것이다.

우리는 국가에 관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왔다. 일부 분야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
만 전체를 뒤집어 바꾸는 법이 없으며, 또 다른 분야들에서는 보존이 지속되지만 전
체를 케케묵은 상태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다.

보수주의는 인간이 만든 정치 철학 중에 가장 단단하고(solid) 고상한(noble) 정치 철학이다.
그러나 보수주의 정치 철학이 한 사회의 지배적 정치 사상이 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
니다. 근대 민주주의에 관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선진국 중에서도 유독 영국과 미국에
서만 보수주의가 뿌리를 박고 있다. 독일에 보수주의가 확고하게 자리잡았었다면 히틀러가
없었을 게다. 프랑스에 보수주의가 자리를 잡았었다면 히틀러에 협조한 비시(Vichy) 정권이
없었을 게다. 프랑스와 독일에 보수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없었던 이유는, ‘몸의 자
유’(Corpus Habeas)와 같은 소중한 법률적 원칙이 수 백 년 동안 안정되게 이어질 때 비로소
보수주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RRF에는 ‘예부터 내려오는’(old)이라는 말이 80 번 이
상,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ancestor) 과 같은 말이 20 번이나 나온다.

이렇듯 버크는 전통적 가치를 소중하게 여겼던 반면, 폭도를 앞세워 사회를 뒤집어 엮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는 넋더리 쳤다. 프랑스 혁명은 ‘이성 강박증’에 지배당했다. 예를 들
어 데빠르뜨망(Department)이라 불리는 사방 90 km쯤 되는 정사각형 면적을 단위로 전국을
83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숲, 산, 강은 물론 기존 생활권도 완전히 무시한 기하학적 분할이
었다. 프랑스 혁명은 한 측면은 기계적 이성, 다른 측면은 폭도의 광기라는 두 얼굴로 이루
어져 있었던 것이다. 버크는 이 두 얼굴 모두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기계적 이성에 대하여
버크는 ‘인공적인’(artificial, 7번), 혹은 ‘관념적으로 생각하기’(speculate, 37번), 혹은 ‘철학적
관념으로 만들어내기’(metaphysic, 25번)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비판했다.

버크는 기계적 이성과 폭도의 광기 대신에 인간의 자연스런 본성, 사회의 자연스런 운영
질서에 바탕하여 지속-변화, 보존-개선을 조화시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화를 위한 핵심 기
준을 ‘자연스러움’에 두었던 것이다. RRF에는 ‘자연’ 혹은 ‘본성’이란 뜻의 ‘nature’라는 단어
가 무려 110번 이상 등장한다. 또한 ‘자연스런’(natural), ‘부자연스런’(unnatural), ‘자연스럽
게’(naturally)와 같은 단어가 무려 70번 가까이 등장한다.

우리 사회에는 조상으로부터 계승한, 즉 까마득한 예부터 내려오는 정치 질서 혹은 법률
원칙이 없다.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되돌아 가 보면, 그들은 그 당시에
가장 혁신적인 사람들이었다. 이 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보수주의가 성립할 여지는 전
혀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는 매우 강력한 보수주의 흐름이 생겨나고 있다. 인간의 자연스런 본
성, 혹은 사회의 자연스런 운영질서에 관한 상식(common sense)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식은 개인주의와 글로벌 시장경제에 대한 긍정에 다름 아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람들
은 **글로벌 시장경제 속의 개인**으로 살고 있다.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이에 대
한 책임을 인정하는 정신이다. 우리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의미의 개인주의를, 인
간의 자연스런 본성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글로벌 시장경제를 사회의 자연스런

운영질서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주의와 글로벌 시장경제라는 인간 존재 조건 (human condition)에 관해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생겨 마침내 상식이 되었다..

우리사회에 등장하고 있는 보수주의는 까마득한 예부터 내려오는 전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점에서는 영미 보수주의와 완전히 다르지만, 인간과 사회의 자연스런 조건을 중시하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영미 보수주의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 측면에서는 다르고 다른 한 측면에서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를 ‘한국적 보수주의’라고 불러야 한다.

한국적 보수주의는 개인주의의 및 글로벌 시장경제와 함께 성장할 것이다.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살아가는 개인이 온전하고 성숙한 개체성(individuality)을 발전시킨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화두가 한국적 보수주의의 운명을 결정지을 것이다.

[이 미니 전자책은, RRF의 전반부를 발췌-가필한 것이다. 미니 전자책 시리즈 중에 발췌-가필은 ‘E+’ 유형으로 분류된다. ‘A’ 유형은 집필, ‘E’ 유형은 순수 발췌, ‘F’ 유형은 전문 번역이다.]

발췌-가필

1. 영국 시민단체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

1.1. 혁명을 축하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프라이스 목사가 이끄는 영국 시민단체 혁명협회(Revolution Society)가 프랑스 혁명 정부의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에 혁명을 찬양하는 문서를 보냈고, 국민의회는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버크는 영국 시민단체의 지도자들을 맹렬하게 비판한다.(-요약자)

나 역시 씩씩한 자유, 도덕이 깃든 자유, 절도 있는 자유를, 그 이상야릇한 협회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한다....나 역시 다른 나라 국민들이 그러한 자유를 가지는 것에 대해, 그 이상야릇한 협회의 그 어떤 사람보다 덜 시기질투 한다. 그러나 사람의 행위와 이해관계에 직결되어 있는 ‘자유’라는 화두를, 일체의 상황과 관련 없이, 별거벗은 채 고립되어 있는 추상적 관념⁴ 상태에서 지지하거나 찬양하거나 비난할 수는 없다. 현실 세계에서 특정 정치 개념에 색채와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그 정치 개념이 놓여있는 문맥⁵이다. 동일한 정치 개념이라도 어떤 때에는 인류에게 이롭고 어떤 때에는 해로운 것이다. 그 개념이 사용된 문맥이 다르기 때문이다. 추상적인 차원에서는 자유 뿐 아니라 제어, 즉 정부 역시 좋은 개념이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프랑스 정부가 어떤 성격의 정부인지 모른 채 프랑스에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할 수 없었듯이, 지금 프랑스의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 모른 채 프랑스에 자유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쁘게 생각할 수는 없다. 만약 자유 그 자체가 축복이라고 믿는다면, 감금 시설을 탈출한 정신병자에게 “자유를 얻으셨군요!라고 축하해야 할 것 아닌가! 감옥을 탈출한 살인 강도에게 “자네! 드디어 자유인이 됐군!”이라고 격려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식이라면 돈키호테가 마주쳤던 죄수들의 뻔뻔스런 자기 변명⁶과 다를 바 없을 뿐이다.

⁴ ‘추상적 관념’의 원문은 metaphysical abstraction

⁵ ‘문맥’의 원문은 Circumstances

⁶ 돈키호테 12장. 죄수의 행렬을 마주친 돈키호테는 그들의 죄목을 알아 본다. 사랑한 죄, 말한 죄, 돈이 없는 죄,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 죄 등과 같이 죄다 억울한 사람뿐인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 내막은 이렇게 밝혀졌다. 남의 물건을 ‘너무 많이 사랑해서’ 훔쳤고, 남의 가축을 훔친 사실과 공범에 대해 ‘자백했고(말했고)”, 공증인과 법정 증인을 매수할 ‘돈이 없어서’ 유죄선고를 받았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창녀들의 포주 노릇을 했다.



런던 올드 주리 거리의 올레이크 교회. 프라이스 목사가 연설했다.
이 지역은 비국교도들이 모이는 빈민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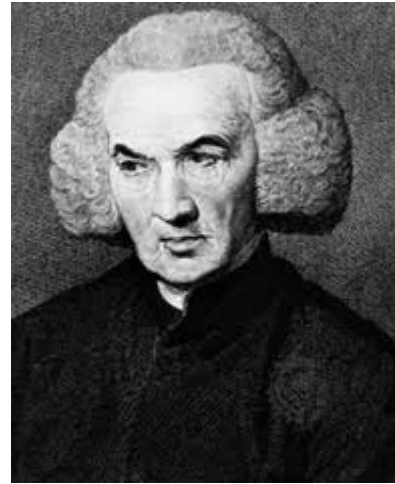
1.2. 자유를 찬양하신다고요?

개인의 자유는 자기 뜻대로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유를 가진 개인을 축하할 지 안 할 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나서야 정할 수 있다. 그 뜻이 안 좋다면 축하가 아니라 불평을 하게 될 것이다. 개인의 자유조차 이러하데 하물며 집단의 자유는 어떻겠는가! 집단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의 자유는 곧 권력을 뜻한다.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해당 집단의 자유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나서야 그 자유를 평가할 것이다. 게다가 이제껏 존재하지 않았던 집단⁷이 획득한, 이제껏 존재한 적 없는 자유인 경우에는 더욱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이 집단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 우리는 아는 바가 아무 것도 없지 않은가! 겉으로 가장 두드러진 행동을 하는 군중들이 실은 소수의 사람들로 이루어진 집단에 의해 조종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조심스럽게 살펴 봐야 하는 것이다.

⁷ ‘제3신분’이 주도한 국민의회를 가리킨다. 버크는 국민의회를 이끌고 있는 구성원들에 관한 성분분석을 진행하여 이들이 하급 법조계 종사자 (하급 변호사, 법무사, 공증인), 하급 의료계 종사자, 하급 주식/채권 매매인, 하급 성직자들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힌다.

1.3. 리처드 프라이스라는 인물: 분열과 갈등의 설교자

프라이스는 정치에 관해 설교했지만 정치와 교회는 공통점이 거의 없다. 교회에서는 상처를 아물게 해 주는 자비의 말씀만 전해져야 한다. 정치와 종교를 섞어 비빔밥을 만들 경우, ‘시민의 자유’ 혹은 ‘시민의 정부’라는 정치적 대의는 이 비빔밥에서 얻을 것이 거의 없다. 기독교의 대의 역시 마찬가지로 얻을 것이 없다. 프라이스 목사가 만드는 식의 비빔밥은 정치적 의무와 종교적 의무를 뒤죽박죽으로 섞어 놓은 것이기 때문이다. 승충이는 술빔을 먹어야 한다. 자신에 속하지 않는 것을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본성을 버리는 경우 양자 모두 얻지 못 하게 되는 법이다. 프라이스 목사 같은 인간들은 세속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르면서도 세속의 일에 왜 이토록 간섭하기를 좋아 하는가! 세속의 일에 대해 아무 경험도 없으면서도 왜 이토록 자신감에 넘쳐 선동하는가! 열에 들뜬 정령 빼고 도대체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다는 말인가! 교회야말로 사람 사이의 시비다툼과 아비규환으로부터 잠시나마 숨 돌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목사들 사이에 이견이 있을 때 프라이스는 목사들에게 “각자 자기 자신의 믿음에 따라 자기 자신의 교회를 만드십시오”라고 충고한다. 그러나 프라이스는, 이견이 있는 목사 각각의 믿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프라이스는 참으로 특이한 종류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자기 의견을 펴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여러 개의 의견을 펴뜨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다. 진실을 알리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 아니라 갈등을 만연시키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다. 프라이스는 이렇게 말하는 셈이다. “목사들이여! 서로 의견을 달리하라! 무엇 때문에, 어디서부터 의견이 갈렸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1.4. 1688년 명예혁명에 관한 거짓말

프라이스는 영국왕이, 국민의 선택에 의해 뽑힌 왕이므로 세계에서 유일한 합법적 왕이라고 말한다. 천만에!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왕을 선출한 바 없다. 프라이스의 말은 바보 같은 헛소리이다. 그러나 그냥 무시하고 지나치면 안 된다. 프라이스의 말에는 매우 위험하며 불법적이며 반(反)헌법적인 함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일단 영국왕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합법적인 왕이라는 사탕발림을 제시함과 동시에, “왕권이 국민의 선출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국왕 체제에 관한 지지 여론의

뿌리를 파괴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이다. 프라이스와 같은 사악한 정치가들은 이런 식으로, 눈에 띄지 않게 한 발자국씩 나아간다. 누군가 나서서 “당신들이 주절대는 헛소리가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매섭게 물어치면 그들은 ‘한 입으로 두 말 하기’ 수법과 ‘뱀장어처럼 빠져나가기’ 수법을 사용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기요...국왕님의 조상 중에 귀족들이 모여서 추대하신 분들이 계시지 않나요? 그것도 일종의 선출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천만에! 그것은 비상시에 귀족이 모여 국왕을 추대한 것일 뿐, 국민의 국왕 선출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프라이스는 위의 헛소리에 바탕해서, 명예혁명 다음 해인 1689년에 제정된 권리장전에 의해 다음과 같은 세가지 권리를 획득했다고 거짓말을 한다. 첫째, 국왕을 선출할 권리(국왕 선출권). 둘째, 국왕을 폐위시킬 권리(국왕 폐위권). 셋째, 국민이 국가 체제를 선택하여 구성할 권리(국가 체제 구성권). 천만에!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1688년 권리 장전은 전혀, 그러한 권리를 정한 바 없다. 권리장전의 정식 명칭은 ‘신민의 권리와 자유 선언 및 왕위 계승에 관한 법’(An Act for Declaring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Subject and for Settling the Succession of the Crown)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확립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습 왕권을 확립한, 동시 패키지였다는 점이 그 법안의 명칭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은가!

1.5. 국민이 국왕을 선출한다고?

1688년 명예혁명은, 왕권을 강화하고 영국에서 천주교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시도했던 제임스 2세⁸를 퇴위시키고 개신교도인 메리 공주(제임스 2세의 큰딸)와 그 남편 윌리엄공(제임스 2세의 큰사위)을 옹립했다. 명예혁명조차 합법적 왕위계승권자나 다름없는 왕족에게 왕위를 주었던 것이다. 왕위와 가장 가까운 왕족 을 옹립하면서도 우리 조상들은 다음과 같이 조심스러운 표현을 사용했다. “두 분의 왕위 계승은 놀라운 신의 섭리이며 자비로운 은총이옵니다.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두 분의 조상님들이 앉으셨던 바로 그 옥좌에 두 분을 모십니다. 저희는 충심으로, 삼가 감사의 말씀과 찬양의 노래를 바칩니다.” 이들은 왕을 선출할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자세를 낮추어 왕을 옹립하면서 왕의 세습의 원칙을 명확하게 확립시킨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왕위 계승에 관한 확실성을 지켜낼 때 비로소, 이 나라의 통

⁸ 제임스 2세의 두번째 부인은 카톨릭 교도였다. 제임스 2세 자신도 카톨릭으로 개종했다. 두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 첫 아들이 태어났다. 제임스 2세는 영국을 카톨릭 국가로 만들면서 왕권을 강화하려 시도했다. 명예혁명은 제임스 2세의 이러한 움직임을 차단한 정변이었다. 명예혁명의 결과, 왕위는 제1순위자인 어린 왕자(카톨릭)가 아니라, 그 왕자가 태어나기 이전의 제1순위자였던 큰 딸(개신교)에게 이어졌다.

일과 안녕과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 이들은 이러한 생각에서 권리장전에 다음과 같은 엄숙한 맹세를 추가하였다. “상원과 하원은 모든 인민의 이름으로 공손하게, 또한 충심으로, 그



들 자신과, 그들의 상속인들과, 그들의 후손들을 왕에게 바칩니다. 한편으로는 왕을, 다른 한편으로는 왕위 계승의 원칙을, 이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보호하고 유지하고 방어할 것임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확고한 원칙을 따르되 예외적인 변화를 인정하는 것. 세습 왕권이라는 신성한 원칙을 따르되 극단적 비상시에는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 극단적 상황에서조차 변화를, 오직 필요한 해당 부분에만 국한시키는 것. 또한 그러한 변화를 실행할 경우, 사회의 기본 원리를 해체하여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만들어 낼 목적으로 시민 전체, 정치 전체를 해체

시키지 않는 것.—이런 원칙이 영국을 만들어 왔다.

변화의 수단이 없는 국가는 보존의 수단 역시 없는 셈이다. 변화의 수단이 없다면 오히려 가장 소중한 헌법 요소가 무너질 수도 있다. 보존과 변화라는 두 가지 원칙은 서로 보완하는 것이다. 이 두 원칙이 손에 손을 잡고 순조롭게 구현되었던 사례가 바로, 왕을 찾아내어 옹립해야 되었던 두 번의 역사적 사건, 즉 왕정복고와 명예혁명이었다. 이 두 시기에 영국은 국가 통합력을 상실했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사회의 조직 자체를 해체시키는 않았다. 오히려 손상되지 않은 부분을 보존함으로써, 구멍이 뚫린 부분이 재생되도록 만들었다. 손상되지 않은, 예부터 내려오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존했던 것이다. 이 위기의 시기에 영국은 예부터 내려온 신분제(身分制) 조직체로서 행동했던 것이지, 갈갈이 분열된 인민이라는 유기체 분자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다. 특히 제1순위자 왕위 계승으로부터 약간 벗어나서 왕위가 계승되었던 명예혁명 때야 말로, 의회가 참으로 조심스럽게 영국 헌정의 기본 정책 원리를 지켜내려 애쓴 시기였다.

당신들, 이른바 혁명협회라는 시민단체 사람들의 눈에는 1688년 명예혁명에서 오직 ‘헌정 질서로부터의 이탈’ 현상만 보이는가? 그렇다. 명예혁명은 제1순위자 왕위 계승이라는 원칙으로부터의 이탈이다. 그러나 이 이탈은 예외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당신들은 이 예외를 기본 원칙인 양 이야기하고 있다. 당신들은 이 예외를 과장하고 왜곡하여 왕위 선출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식이라면 이제까지의 모든 왕은 찬탈자가 되고, 군주의 모든 행위는 무효가 되고 만다. 당신들은, 우리 조상의 모든 왕들의 시체를 무덤에서 파내어 질질 끌고 다니자는 말인가? 대헌장에서 명예혁명에 이르는 모든 위대한 전통과 법률을 폐기처분하자는 말인가?

영국에서, 국민이 국왕을 선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국왕을 만들었다는 주장만큼이나 광신적인 헛소리이다. 국왕은 국민의 선출에 만들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세습시키는 것도 아니다. 오랜 세월을 걸친 조심스럽고 사려 깊은 전통과 법률에 의해, 국민의 권리 및 자유와 짝을 이루는 세습 국왕제가 자리 잡은 것이다.

1.6. 부당행위를 한 국왕을 폐위시킨다고?

프라이스는 명예혁명을 통하여, 부당행위(misconduct)를 범한 국왕을 폐위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부당행위는 막연하기 짝이 없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이런 어설피고 포괄적인 개념을 내세워 국왕을 쫓아낼 수 있다면 한 순간도 정부가 성립할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명예혁명을 일으켜 제임스 2세를 쫓아낸 것은 애매 모호한 부당행위 때문이 아니었다. 국교회(Anglican) 체제를 무너뜨리고 카톨릭 국가를 만들어 왕권을 터무니 없이 강화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아낸 것이다. 제임스 2세는 예부터 내려온, 국왕과 신민 사이의 원초적 계약을 파기했던 것이다.

명예혁명을 통해 국왕을 쫓아낸 우리 조상들은 그 국왕의 큰 딸과 사위를 왕위에 앉혔다. 또한 우리 조상들은 다시는 이런 국왕이 나오지 못 하도록, 또한 다시는 국왕을 쫓아내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한편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왕위 세습제도를 강화했다. 한마디로 왕은, 대대손손 세습되는 동시에, 아무 책임을 지지 않는 상징적 존재가 된 것이다. 심지어 우리 조상들은 국왕의 사면(赦免)마저도 의회가 뒤집을 수 있도록 만들었다.

프라이스 목사는 국왕 폐위를 피크닉 행사쯤 되는 것 같이 말한다. 천만에! 국왕 폐위는 혁명이다. 혁명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끔직한 사건이다. 또한 혁명은 법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의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 그것은 언제나 실정법 바깥의 영역에 존재한다. 혁명은, 사려 깊고 선량한 사람들에게는 항상 최후의 수단일 뿐이다.

1.7. 국민 맘대로 국가 체제를 만든다고?

프라이스 목사는 명예혁명을 통하여, 우리 맘대로 국가 체제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고 주장한다. 천만에! 이는 새빨간 거짓말이다. 명예혁명은 예부터 내려오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률과 자유를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명예혁명은, 법치와 자유를 보장하는, 소중한고도 유일한 보장장치인, 예부터 내려오는 헌법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정치 체제를 하루 아침에 만들어내려고 하는 시도는 구토와 공포를 일으키게 한다.

우리는 명예혁명 당시나 지금이나, 우리의 소중한 가치와 제도가 우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기를 원한다.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치 외에, 다른 잡스런 결가지가 끼어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왔다. 우리의 가장 오랜 개혁은 대헌장⁹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헌장은, 그 이전의 까마득한 예부터 존재해온 왕국의 법 질서를 헌장의 형태로 확인한 것이다. 1628년의 권리청원¹⁰ 역시 “백성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영국인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권리의 원천은 예부터 내려오는 것이지, 프랑스 혁명이 시도하고 있듯이 어떤 추상적 이론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다.

영국인의 자유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와 우리 후손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사회가 계약이라면 동시대 사람 사이의 계약일 뿐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나중에 살 사람들과의 계약이기도 하다. 세대에서 세대로 보존되어 전해진다는 원칙은 자연의 이치를 닮았다. 자연은 생각이 없지만,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보다 더 지혜롭다.

이기적이며 근시안적인 사람들이 과격한 변화를 지지하는 경우가 흔한 법이다. 이런 사람들은 다음 세대를 걱정하지도 않고 선배 세대를 돌아보지도 않는다. 우리 영국인들은 이런 종류의, 열에 들뜬 사람들의 속성을 꿰뚫어 보고 있다. 또한 우리 영국인들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 후손에게 물려준다는 전승(傳乘, inheritance)의 개념이, 결코 개선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안다. 이 전승의 개념은, 자신의 당대에 새것을 획득해서 더하는 행위를 가로막지 않는 한편, 한번 획득된 것은 단단히 지키게 해 준다.

이것이 바로 자연의 이치다. 우리의 헌정 질서는 자연의 이치를 본받았다. 조상으로부터 물려 받은 것들이 우리 손에 의해 유지되어 후대에게 전승되는 것이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개개의 생명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그러나 생명의 흐름은 항상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개개의 전승은 쇠락하고 무너지고 개선되고 발전한다. 그러나 이 전승의 총체는 항상 일정한 흐름을 가지게 된다. 아, 인류 자체가 바로 이런 흐름 아닌가!

우리는 국가에 관해서도 이 원리를 적용해 왔다. 일부 분야들에서는 개선이 이루어지지만 전체를 뒤집어 바꾸는 법이 없으며, 다른 일부 분야들에서는 보존이 지속되지만 전체를 체계적으로 상태로 내버려 두는 법이 없었다. 그리하여 우리는 면면히 이어지는 전통을 가지게 되었고 위대한 조상들이 바로 우리 곁에 존재하는 듯 느끼게 되었다. 그 결과, 방종과 과잉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자유 정신마저도 과묵한 진중함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었다. 조상

⁹ 1215년, 영국 귀족들이 왕을 압박하여, “사람을 마음대로 가두거나 처벌할 수 없다”는 인신보호에 관한 원칙에 서명하게 했다. 이 원칙이 대헌장이다. 이 원칙은 현대 형법의 인신보호원칙인 구속적부심 제도, 즉 ‘Habeas corpus’로 발전한다.

¹⁰ 세금은 의회만 부과할 수 있다, 평화 시에는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다, 구속된 사람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등을 정한 문서이다.

으로부터 소중한 자산을 엄청나게 많이 물려받았다는 자긍심은 우리를 품위 있게 만들었다. 경망스럽고 교만한 졸부 근성을 피할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자연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사람 개개인을 존중하라고 가르쳤다. 우리는 바로 이 가르침의 근저를 이루는 ‘전승의 개념’을 확장하여 우리 사회의 제도와 규칙을 소중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우리 영국인들이 걸어 온 길은 합리적이고 당당한 자유를 유지하는 데에 있어 최상의 코스이다. 당신들, 켈변을 일삼는 사변적 혁명가들은 이보다 더 낡은 방안을 결코 찾아낼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권리와 자유를 위해, 사변보다는 자연을, 머리에서 쥐어짜낸 새로운 것보다는 가슴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것을 선택해 왔기 때문이다.

2. 프랑스 혁명 주체의 실체와 폭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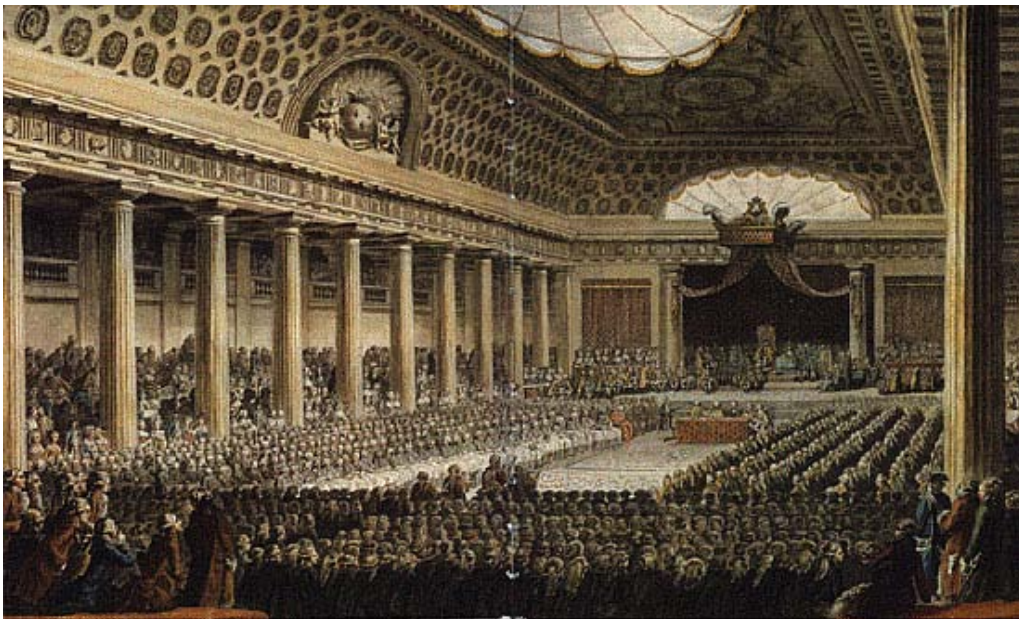
2.1. 과거 파괴자들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모든 과거를 파괴했다. 당신들은 선조들, 동시대인들, 마침내 당신 자신을 멸시하는 상태에 이르렀다. 당신들이 떠드는 언설은 터무니없고 방자하기 짝이 없는 사변일 뿐이다. 프랑스는 이익을 얻기 위해 덕성을 희생한 것이 아니다. 덕성을 없애기 위해 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그 결과, 흔히 가진 자, 권력자에게 나타나는 도덕적 타락이 이제 전 계층에게 확산된 상태가 되었다. 당신들이 그토록 가혹하게 학대하고 있는 국왕 루이 16세는 온화하고 타협주의적인 인물이다. 당신들은 국왕의 양보를 혁명으로 되갚았고 국왕의 보호를 반역으로 보답했다. 이것은 자연에 반하는 짓이다. 이제 당신들이 대가를 치를 때가 되었다. 법률은 쓰레기가 되었고 법정은 폭도들의 난장판이 되었고 산업은 침체했고 상업은 소멸했다. 물가가 치솟고 사람들은 가난해졌다. 교회 재산을 약탈했지만 어느 한 계급도 부유해지지 못 했다. 정치적, 군사적 무정부상태가 만연해 있다. 당신들의 국가, 프랑스 자체가 파산한 것이다.

과연 이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일까? 아니다. 당신들의 혁명은, 국가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져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다. 당신들은 태평스런 시기에 혁명과 반역을 감행한 것이다. 당신들은 이런 식의 혁명을 하는 대신에 영국의 사례를 활용할 수도 있었다. 당신들은 기품 있고 고상한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또한 혁명 전의 헌정질서는 당신들이 원하는 최선을 담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었다. 온건한 타협, 피와 폭력에 대한 절제 대신에 당신들은 혁명을 택했다. 그 결과, ‘**군중의 손에 의해 집행되는 자의적 권력**’이라는 괴물이 만들어진 것이다.

2.2. 이들의 정체는 누구인가?

당신들은 누구인가? 피에 굶주려 물려 다니는 군중을 조종하고 있는 당신들, 국민의회¹¹ 의원들은 누구인가? 국민의회는 제3신분 의원들과 시골 보좌신부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다. 제3신분 의원들 중 상당수는 우선 법조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매우 격이 낮은 법조인들이다. 미미한 지방 변호사들, 지방 법원 사무원들, 시골 법무사들, 공증인들, 지역 소송 사건에 관계하는 대리인들, 마을 분쟁을 부추기고 자행하는 소송 사냥꾼들. 이들은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헌법과 법률을 만들어 내고 있다. 제3신분을 구성하는 또 다른 대표적 직업군은 의사들이다. 알다시피 지금 세상에서 의사는 별로 뛰어나지 못한 사람들이다. 게다가 의사들이 정치에 대해 무엇을 알겠는가? 제3신분을 구성하고 있는 또 다른 대표적 직업군은 주식 및 채권 브로커들이다.



프랑스는 과거 혼란기에조차 프랑스의 정신을 죽인 적은 없었다. 당당함, 자긍심, 명예, 모범에 관한 고귀한 감각이 고스란히 유지되었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가? 당신들은 생명 그

¹¹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신분제 의회가 1789년 5월 5일에 소집되었다. 루이 16세가 양보하여 평민의 비중이 귀족과 성직자의 비중을 합한 것만큼 되도록 했다. 귀족이 270명, 성직자가 290여명, 평민이 578명이었다. 성직자 중 200명 이상이 하층 성직자(시골 보좌신부)였다. 평민 578명 중에는 법조계 종사자가 200명 이상 되었다. 평민과 하층 성직자가 주도하는 신분제 의회는 6월 17일, 스스로를 국민의회라 선언했다. 국민의회는 7월 9일 스스로를 국민제헌의회라 선언하고 제헌 권한을 자임했다. 프랑스 혁명은 신분제 의회가 소집된 5월 5일부터 싹트기 시작하여 국민제헌의회가 만들어진 7월 9일까지 약 2달 동안에 그 추진력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폭도는 이해 10월, 루이 16세 및 친위 귀족을 베르사이유에서 납치하여 파리로 끌고 와서 연금상태로 가둔다. 허울 뿐인 왕으로서 지내던 루이 16세는 1792년 8월에 폐위되어 1793년 1월 21일 기요틴에 의해 목이 잘린다. 광기에 들뜬 군중들은 루이의 목에서 뽑아 나온 피에 자신의 손수건을 적셔 기념품으로 만들었다. 루이 16세의 처형은 국민의회가 아닌 국민대회(National Convention) 체제에서 이루어진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공포정치가 이루어진 것도 국민대회 체제 아래에서였다. RRF는 1790년 국민의회 시절에 준비되어 출간되었다. 이 책은 버크는 국민의회와 국민제헌 의회를 구별없이 '국민의회'라고 부른다.

자체의 기반을 공격하고 있다. 평등을 추구한다고 평등이 이루어지는 법이 아니다. 모든 사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그 중 일부가 상류층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억지로 한번에 평등하게 만들려는 시도는 사물의 자연적 질서를 파괴할 뿐이다. 지금 파리 공화국은 목수와 재봉사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통치를 맡게 되면 자연스런 국가 기반 자체가 붕괴한다. 그렇다. 당신들은 지금 자연의 이치를 뒤집어 옳으려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2.3. 왕을 개처럼 끌고 오셔서 행복하십니까?



지난해(1789년) 10월 6일 당신들은 왕과 왕비¹²와 그들의 두 어린 아이들을 베르사이유 궁전에서 잡아내어 폭도로 에워싼 채 19 킬로미터의 길을 장장 여섯 시간 동안 비루먹은 개처럼 걷게 만들어 파리로 끌고 왔다. 근위병 두 명의 머리를 잘라 창대에 꽂아 그 행렬의 선두에 세웠다. 당신들은, 광기에 들뜬 하층 아낙네들이 중심이 되어 저지른 이 야만스런 행패를 ‘개선행진’이라 부른다.

당신들은 국민의회 의원 중에 사려 깊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 수 백 명을 압박하고 암살하여 제거했다. 당신들은 남의 재산을 가로채면 쉼수록 자유가 더 커진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회 자체가 코메디가 되었다. 선술집에 모인 음모가들은 겁대거리 없고, 폭력적이고, 사악한 계획을 끊임없이 만들어내어 이를 국민의회

심의와 결정을 통해 현실화시키고 있다.

자, 프랑스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프raise 목사님! 당신은 이를 찬양하는가? 그것도, 교회 교단에서 찬양하는가? 왕과 왕비와 어린 아이들을 개처럼 끌고 다니는 것이 과연 교회제단에서 숭배하고 찬양할 일인가? 프랑스 국민의회는 이미 식인귀 소굴이 되었다. 아, 차라리 단번에 사람을 죽인다면 낡을지 모른다. 프랑스는 이제 사람들에게, 무수한 고통을 부질없이

¹² 마리 앙투아네트는 1793년 10월, 당시 8살 난 왕자 샤를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죄명으로 처형되었다. 목이 잘리기에 앞서 머리를 깎인 채 짐마차에 태워져 파리 시내를 한 바퀴 돌았다. 샤를은 1793년 7월부터 왕비와 격리되어 불리한 진술서를 쓰도록 협박받았다. 왕비의 죽음 이후에도 샤를은 독방에 갇힌 채 세뇌교육을 받았고 처형에 대한 협박을 받았다. 또한 샤를은 억지로 술을 먹도록 강요 받아서 ‘꼬마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결국 1795년 10 살의 나이로 독방에서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숨졌다.

견딜 것을 강요하고 있다. 폭도들의 개선 행진과 광란 속에 서서히 인간 그 자체를 파괴¹³하고 있는 것이다.

2.4. 기사도와 지식인

인간에는 당당함, 용기, 약자에 대한 자비, 여성에 대한 보호본능과 같은 숭고함이 있다. 이 숭고함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그 형태를 달리 하지만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유럽의 기사도 역시 이 숭고함의 표현 형태이다.

프랑스 혁명은 바로 이 숭고함을 파괴했다. 상위자와 여성에 대한 충절, 자գ심에 의해 뒷받침되는 복종, 당당한 순종, 고귀한 자유정신이 뿌리째 뽑힌 것이다. 이제 국왕은 한 마리 숫컷이고 여왕은 한마리 암컷이다. 국왕을 죽이든, 애비 에미를 죽이든 그냥 하나의 살인¹⁴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기사도 정신으로 표현된 숭고함이야말로 사회의 위, 아래를 통합하는 원리이다. 이 숭고함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이제 백성은 ‘이론으로 무장한 반역 세력’이 되었다. 그에 대한 반발로서 앞으로 지배자는 ‘책략으로 무장한 폭군’이 될 것이다.

이 숭고함은 또한 학문의 보호자이기도 하다. 귀족과 교회가 학문을 보호했던 것 역시 이런 종류의 숭고함에서 나온 것이다. 이제 학문은 그 보호자를 발로 차버리고 기꺼이 폭도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 앞으로 학문은 돼지 같은 군중의 발에 짓밟히게 될 것이다. 종교도, 명예도 당당한 자գ심도 없는 나라, 경제가 거덜난 나라는 그 앞날이 뻔하다. 국민의회 지도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이미 자유가 아니며, 그들의 현



¹³ 마리 앙뜨와네뜨가 처형 전에 남긴 마지막 말은 “아, 죄송합니다. 발을 밟을 생각은 없었습니다”라는 이야기였다. 8살짜리 아들과 근친상간을 했다는 죄명으로 머리가 박박 깎인 채 기요틴에 걸어 올라 가다 망나니의 발등을 밟고 한 이야기이다. 그 아들은 협박과 공포에 질려 “엄마랑 그 짓을 했어요”라고 진술서를 썼다. 이 모자의 비극은 공포와 학대 속에 인간 심리가 완전히 붕괴한 상태를 보여준다.

¹⁴ 루이 16세를 처형할 때 ‘시민 까뻬’라고 불렀다. 까뻬는 루이 왕조를 만든 시조의 성이다. 마리 앙뜨와네뜨를 처형할 때에는 ‘까뻬 집안의 과부’(Widow Capet)라고 불렀다.

란한 이론은 거만한 무지일 뿐이다. 그들이 떠벌이는 인간성은 동물적 야만성일 뿐이다.

아! 프랑스여, 너는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유럽의 고귀한 것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너로부터 샘 솟아 나왔던가! 그러나 이제 너 자신의 행위에 의해 그 샘은 막혔고 오염되었다.

2.5. 혁명 문필가는 금융자본가의 개

과거 영국의 폭군 헨리 8세가 카톨릭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고 영국 국교회를 세웠을 때조차 교회의 범죄와 부패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두었다. 형식적으로나마 구체적 사실을 조사했던 것이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를 의회가 인정하도록 만들기 위해 헨리 8세는 의회를 구성하는 귀족들을, 엄청난 공을 들여 설득했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진 이후에야 비로소 교회 재산을 몰수했던 것이다.

그러나 만약 헨리 8세가 지금 세상에 산다면 그토록 애쓰지 않고도 간단하게 교회재산을 몰수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혁명가들을 본받아, ‘철학, 계몽, 자유, 인권’이라는 네 단어만 크게 떠들면 될 것 아닌가!

아, 프랑스인들이여! 당신들은 기소, 심리, 선고 없이 무슨 근거로 교회재산을 몰수하는가? 당신들이 내세운 명분은 ‘국가 재정 위기’였다. 그렇다면 당연히 루이 왕조 정부에 돈을 빌려주었던 금융자본가들, 채권자들에 대해 모라토리움(지불유예)을 선언했어야 하지 않은가? 당신들은 프랑스 정부가 혁명 전에 맺은 국제조약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심사하여 그 유효성을 따져보겠다고 주장하지 않은가! 심지어 국제조약조차 실행을 거부하는 마당에, 왜 유독 금융자본가의 채권만은 100% 인정하는가?

이는 혁명 문필가들이 오래 전부터 금융자본가들과 밀접한 동맹관계에 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이 문필가들은 금융자본가들에게 충성을 바침으로써 일찌감치부터 일반 민중의 금융자본가에 대한 증오심을 희석시켜 왔다. 또한 이들은 왕, 귀족, 성직자들의 오류를 크게 과장하여 묘사함으로써 민중의 증오심이 겨냥될 수 있는 타겟을 명확하게 만들었다. 즉 이들은 매우 영악한 민중 선동가가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프랑스의 재정위기는 이러한 몰수가 필요할 만큼 심각했던 것인가? 아니다. 바로 당신들이 임명한 재무장관인 네케르 자신이 전체 재정의 약 10% 정도에 해당하는 5천만 리브르 정도가 적자일 뿐이며, 이는 절약과 징세 강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 당신들은 국가 재정 위기 때문에 교회 재산을 몰수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 몰수한 것이다.

게다가 몰수한 재산을 당신들은 어떻게 분배했는가? 12년에 걸친 할부 납부에 의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지 않았나! 거의 공짜로 토지를 차지한 자는 건축용 대리석을 캐어 팔은 수익, 나무를 잘라 팔은 수익, 농민을 상대로 돈 놀이를 해서 걷어들인 수익으로 그 토지 대금을 지불하고 있지 않은가! 혁명은 이제 거대한 사기, 기만, 폭력, 약탈, 방화, 살인, 몰수가 벌어지는 난장판이 되었다. 강제유통 시키고 있는 지폐는 나날이 그 가치가 하락¹⁵하고

¹⁵ 나중에는 액면의 0.3% 정도까지 가치가 떨어졌다. 즉 10,000원 권이 30원 정도의 가치 밖에 안 가지게 된 것이다. 33,000% 인플레이션이다.

있다. 이런 재앙적 상황에 대한 비판을 당신들은 ‘반혁명’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그 결과, 당신이 주장하는 순수 민주주의에 대해 조금이라도 의심을 품으면 ‘폭군 지지자’ 혹은 ‘인류의 적’이라고 불리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참고 자료: 프랑스 혁명 전개 과정 요약.

1. 제1기 (1789.5 ~ 1792.9): 혁명 초기 3년

- ⇒ 1789.5 신분제 의회 소집
- ⇒ 1789.6. 신분제 의회는 스스로를 ‘국민의회’라고 자임
- ⇒ 1789.7.9 국민의회는 스스로를 ‘국민제헌의회’라고 자임
- ⇒ 1789.7.14 바스티유 습격을 상징적 계기로 권력 장악
- ⇒ 1789.10 폭도가 왕을 베르사이유에서 납치하여 파리에 가택 연금시킴
- ⇒ **1790. 11 에드먼드 버크, RRF 출간**
- ⇒ 1791.9 헌법제정에 따라 국민제헌의회 해산 (명목 상으로는 루이16세가 왕임)
- ⇒ 1791. 10. 선거에 의해. 745명의 입법의회 구성. 왕정복고파가 승리함..
- ⇒ 1792.8 공화국 건립을 요구하는 폭동

2. 제2기(1792.9~ 1795.10): 국민대회 체제와 공포정치

- ⇒ 1792. 9 국민대회(National Convention) 체제
- ⇒ 1792. 9 왕정 철폐
- ⇒ 1792.10 루이 16세 폐위 및 체포
- ⇒ 1792.10. 루이 16세 처형
- ⇒ 1793.6: 공포정치 시작 (내무위원회의 전횡)
- ⇒ 1793. 10 마리 앙뜨와네뜨가 8살짜리 아들 샤를과 근친상간했다는 죄목으로 처형됨
- ⇒ 1795.6 왕자 샤를이 10살의 나이로 영양실조와 폐렴으로 독방에서 숨짐
- ⇒ 1795.7 공포정치 종료

3. 제3기 (1795.10~1799.11) : 감독(Director) 체제

- ⇒ 1795. 9 개헌 → 과거보다 비교적 온건한 체제로 선회
- ⇒ 1795. 10 과격파의 폭동 → 나폴레옹에 의한 진압
- ⇒ 1795.10 국민대회 체제 해산 및 감독체제 출발
- ⇒ 1799.11 나폴레옹 쿠데타 (1799.12 헌법 개정에 의해 나폴레옹이 호민관이 됨)